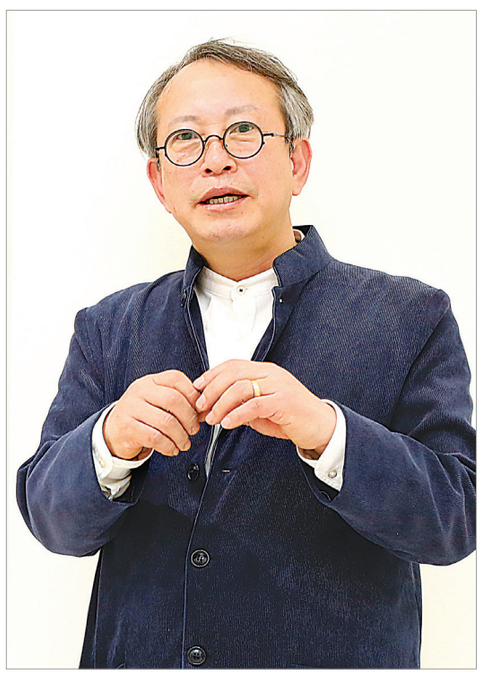
연꽃잎 조각에 그린 불보살세계

서용 개인전 '2021 천상언어' 展
갤러리 오 스퀘어 4월 6일~23일

"돈황서 벗어났지만 뿌리는 돈황"
땅과 하늘의 상생과 호흡 조형화
기존 작업에 확고해진 색채 더해
21C 정서로 그린 불화 아닌 불화



서용 作, 천상언어 2102(97×47cm×4ps)



서용 화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미술의 보고인 돈황석굴 벽화에서 그림의 가치를 정립하고 화가로서의 길을 모색했던 서용 화백이 4월 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갤러리 오 스퀘어' 에서 개인전 '2021 천상언어' 를 연다.

서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이전의 작업에 더욱 확고해진 색채를 더한 콜라보 작품을 선보인다. 오래전부터 판화와 도자, 부조 등 다양한 기법을 공부했던 경험으로 재료 사용 측면에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서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서 화백은 특정적인 문자를 분해하고 재배열해 흙으로 만든 무늬를 땅으로 삼았다. 그림의 베이스로 삼았다. 그리고 불보살 등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하늘로 삼았다. 연꽃 한 송이를 해체해 꽃잎을 형상화하고 그 위에 부처와 보살을 그렸다. 그렇게 땅과 하늘은 상생하고 호흡한다. 서 화백은 그것을 "조형"이라고 말한다.

이번 전시의 감상 포인트는 '조형' 이다. 수천 년 전의 도상들이 서용이라는 작가가 오늘에서 그리고 있는 '정서' 를 만나 현대화된다. 그것이 서용의 그림이다. 내용은 불교이지만 그 형상은 지금까지 없었던 형상이다. 서 화백은 그것을 '제시' 라고 했다. 눈에 익은 불화가 아니고 21세기 오늘의 서용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정서를 집어넣어 그려낸 불화를 제시한다. 불화라는 형상이 현대화되고 돈황의 도상이 또 한 번 현대미술로 태어났다.

그 동안 '변화' 와 '다름' 을 추구해온 서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역시 또 한 번 변화와 다름의 그림을 보여준다. 서 화백 그림의 본격적인 변화는 2019년 열린 개인전에서부터 볼 수 있다. 그 큰 변화의 시작은 돈황을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번 전시를 보면 서 화백이 돈황에서 완전히 나왔다는 생각이 들만큼 새로운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언제부턴가 돈황에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황에 너무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돈황을 벗어나서 나의 세계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돈황이라는 고대의 역사적인 미술언어와 21세기 AI시대를 살아가는 '서용' 의 정서가 자꾸 충돌했어요. 그런데 돈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돈황에서 나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서 화백의 그림에는 여전히 '돈황' 이 있다. 서 화백은 돈황을 아버지와 같다고 말한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를 떠날 수는 있지만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 화백의 몸과 마음 곳곳엔 돈황의 바람소리와 모래바람 등 지울 수 없는 돈황의 풍경이 들어있다.

"내가 처음 돈황벽화를 만났을 때,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를 바라보고 먼 옛날 저 그림을 그렸을 화가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가로서의 삶에 지표를 삼았듯이 작가 본연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한다. 작가에게 작품은 하나하나가 그날의 기록이고 전시는 마침 표보다는 하나의 방점이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의해서 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봐야겠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천상언어' 역시 서 화백이 돈황에서 불교 도상을 그리며 집중했던 단어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 도상들이 신의 언어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무당이 신의 말을 전하듯이 자신은 꽃으로 나무로 또는 바람으로 들었던 신의 말을 그림이라는 도구로 풀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은 관자의 몫이다.

서용 화가는 1962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한 · 중 수교 직후인 1992년 8월, 중국에 유학하여 중국 북경 중앙미술대학 판화과에서 수인판화를 연수하고 1996년 동 대학 벽화과에서 석사를 받았다. 1997년 3월에 실크로드 고도 돈황으로 들어가 7년간 생활하며 돈황벽화를 연구하고 중국난주대학에서 개설한 돈황학 박사 과정을 1기로 졸업했다.

1994년, 중앙미술대학 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1996년 중국 최고의 미술관인 중국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2004년 8월, 평창동 가나화랑 초대로 13년간의 중국 유학 생활을 정리하는 귀국 전시를 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한국에 소개했다. 그 후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 특별 초대전, 부산 예가 갤러리 초대전, SADI Space Gallery 기획초대전, 평촌 아트홀 기획초대전, 미국 코네티컷 대학 박물관 기획초대전, 중국 북경 공화랑 초대전, 동덕아트 갤러리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북경 ARTFAIR, 한국을 이끈 30인의 작가전, 60인 독도진경전, 호옥션 기획전, 디 아카데미 작가 4인전, 시카고 아트페어, 스위스 쮜리히 아트페어, 서울오픈아트페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르코 07' 아트페어 등에 작품을 출품했으며 홍콩 크리스티, 서울옥션 등 경매에 작품을 올렸다.

2006년 중국 언론에서 중국 내 국제관계에 공헌한 외국인 12인을 선정했는데 그중 문화계 인물 대표로 선정되어 수상했으며, 2003 세계의 한국인(SBS), 2006 KBS 역사기행 - 하서회랑을 가다(KBS), 2009 KBS 수요기획 - 실크로드 석굴벽화의 비밀 (KBS), 泊客中國-大漠之觀 (중국 천진TV, 홍콩 봉황TV) 등 수차례에 걸쳐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외 방송에 출연했다.

벽화 제작으로는 서울 상도선원, 중앙승가대학교 도서관 로비 벽화를 제작하였으며 강서대묘,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의 복원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의 복원 및 모사 작품을 제작했다. 현재는 중국 북경 중앙미술대학 벽화과 객좌교수와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BTN · BBS, 새 프로그램 통해 '봄단장'



BTN, 스토리텔링 법회 '붓다테라피' 선봬
BBS, TV강의 · 라디오 신행 프로그램 강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와 BBS불교방송(사장 이선재, 이하 BBS)이 봄을 맞아 새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청취자를 찾아간다.

BTN은 4월 중 신규 프로그램 '붓다테라피' 와 'AI와 붓다' 를 선보인다. '붓다테라피' 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과 부처님 가르침의 비유를 통해 불법(佛法)을 좀 더 가깝게 만나는 스토리텔링 법회이다. 4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 저녁 7시30분과 화요일 오후 2시30분에 방송된다.

신규프로그램 'AI와 붓다' 는 '기계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 불교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한 특강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 특강 시리즈 'AI와 붓다' 는 4월 27일 오후 4시에 첫 방송되며 방송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저녁 11시와 토요일 저녁 9시이다

BBS는 공중파 라디오와 케이블 TV채널에 봄맞이 신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했다. BBS 라디오는 4월 12일부터 시작된 개편을 통해 아침 시간대에 명상과 신행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첫 번째 주자는 '각산 스님의 새벽 명상' 이다. 한국명상총협회장이자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인 참불선원 각산 스님의 지도로 매일 새벽 4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돕는다.

이어 새벽 4시 30분에 방송하는 '선묵혜자 스님의 나를 찾는 백팔기도문' 은 조계종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의 기도문을 들으며 108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오후 4시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과 함께하는 '영산 스님의 음악산책' 이 방송되고, 저녁 9시에는 '도현아의 아무튼, 트로트' 가 방송된다.

이와 함께 BBS TV는 4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하는 '오경 스님의 원각경 강좌' 는 안동 보경사 주지 오경 스님이 〈원각경〉을 한 음절씩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석해 시청자들이 경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주 월요일 저녁 10시 40분에는 '원제 스님의 온전한 나로 살기' 가 방송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정보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가 방송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 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